

소비 유형 특성별 회복 가능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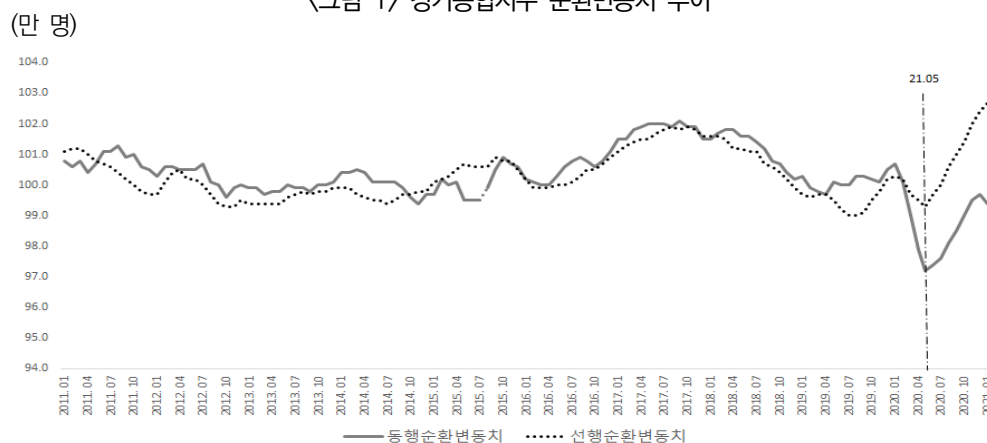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2021년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의 회복 여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이후 민간 소비는 재택 시간의 증가와 정부의 부양책 등에 따라 내구재에 의존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내구재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다른 유형의 소비에서 가시적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2021년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2021년 2월 우리나라 산업 생산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는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산업 생산도 2021년에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경기의 순환적 추이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반면, 소매판매지수는 산업 생산과는 달리 2021년 2월 전월비(계절조정 기준) 0.8%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그림 1〉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 본고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을 소비 유형별로 살펴보고, 향후 소비 회복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함

- 재화 소비는 '소매판매액지수'로, 서비스 소비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함
- 소매판매액지수와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15년 기준 불변 지수를 사용했으며, 특정 기간의 규모는 해당 기간의 월별 지수의 단순 평균으로 산출하였음

○ 재화 소비의 회복 여부는 내구재 소비의 위축이 최소화되고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소매판매액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준내구재 소비의 급속한 위축과 내구재 소비의 폭발적 증가라고 할 수 있음
 - 2020년 3~12월 중 내구재는 승용차(20.40%), 가전(23.01%), 가구(25.60%)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22%나 증가한 반면,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각각 12.49%,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내구재 중심의 소비라는 특징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동차개별특별소비세 감면¹⁾ 등 정부의 부양책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표 1〉 재화특성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 동기간 대비)

(단위: %)

내용	2020년 3~12월	2021년 1~2월
총지수	-0.09	3.92
내구재	13.22	23.15
승용차	20.40	38.32
가전제품	23.01	27.47
통신기기 / 컴퓨터	-3.09	8.09
가구	25.60	20.07
기타 내구재	-12.49	-2.51
준내구재	-12.56	-2.29
의복	-17.51	-4.99
신발 및 가방	-26.99	-12.25
오락, 취미, 경기용품	11.59	15.46
기타 준내구재	0.78	2.42
비내구재	-1.42	-2.29
음식료품	3.73	0.79
의약품	3.88	-6.42
화장품	-21.81	-12.85
서적, 문구	1.44	0.05
차량연료	-1.12	-1.69
기타 비내구재	1.34	-0.05

주: 해당 기간의 소비는 불변지수의 단순 평균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

1) 자동차개별특별소비세는 2020년 3~6월 중 70% 감면되었으며, 이후에는 30% 감면이 적용되고 있음

- 소매 판매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은 2021년에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일부 준내구재에서 감소세가 완화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음
 - 2021년 1~2월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38.32%), 가전(27.47%), 가구(20.07%)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3.15% 증가하여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1~2월 준내구재 판매는 2020년 3~12월과 비교할 때 의복(-4.99%), 신발 및 가방(-12.25%)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보다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소비의 회복 여부도 서비스 소비의 위축이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표 2〉 참조)

-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생산지수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관련 소비도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숙박업 및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생산지수는 2020년 3~12월 전년 동기간 대비 18.46%나 감소했으며, 2021년 1~2월에도 25.62% 감소하여 극심한 불황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자영업업을 대표하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생산지수 증가율은 2020년 3~12월 전년 동기간 대비 -16.24%에서 2021년 1~2월에는 -25.53%로 더욱 악화되어 불황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지수를 가중 평균한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²⁾ 증가율은 2020년 3~12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3.38%에서 2021년 1~2월에는 -1.19%로 나타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2〉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 증가율(전년 동기간 대비)

(단위: %)

내용	2020년 3~12월	2021년 1~2월
숙박 및 음식점업	-18.46	-25.62
숙박업	-33.22	-26.08
음식점 및 주점업	-16.24	-25.53
음식점업	-16.03	-22.2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16.92	-36.37

자료: 통계청

○ 내구재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다른 유형의 소비에서 가시적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2021년 내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코로나19 이후 소비를 지탱해 온 내구재 소비의 경우 재화 특성상 지속적인 판매 확대가 쉽지 않고 2020년 3월 이후 개별특별소비세 인하 효과도 선반영되어 있어 추가적인 소비 회복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도 지속되면서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있어 외식이나 의류, 가방, 화장품 등 다른 유형의 소비 진작에 한계가 나타날 경우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2) 통계청은 소매판매액지수가 민간소비 중 재화 소비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를 감안하기 위해 대표적인 서비스 소비인 외식을 고려하기 위해서 소매판매액지수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를 속보성 지표로 작성하고 있음